



폭염에도 포기를 모르는 당신이 챔피언



“화이팅~” 15일 너릿재 옛길에서 열린 ‘8·15 광복절 기념 제2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에 참석한 마라토너들이 출발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자~출발”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오른쪽)과 ‘마라톤세상’ 이영애 대표(왼쪽)가 마라톤 출발을 알리는 충성을 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너릿재 숲길은 전국에 내린 폭염 특보가 무색하게 시원했다. 전국에서 몰려온 5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은 ‘공기 속 비타민’이라는 피톤치드를 한껏 들이마시며 신록이 우거진 시원한 숲길을 따라 달렸다. 광주일보사가 마라톤세상, (재)아시아문화와 공동 주최로 15일 진행한 ‘8·15 광복절 기념 제2회 너릿

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역 대표적 명소를 알릴 새로운 여름 스포츠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더운 여름날 산길을 달리는 ‘흑서(酷暑)기 마라톤’으로는 호남권 유일한 대회라는 차별성을 갖춘 점, 편백나무·소나무 등 코스 내 천연수종에서 뿜어내는 청량한 기운이 더위를 가시게 할

폴코스·25km·8.5km 코스 경쟁 전국서 온 500명 너릿재 청량함 만끽 지자체장들도 도전장...명품길 알려

만큼 울창해 무더위를 식히며 달리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점, 선조들의 항일 민족정신과 호국의지를 되새기는 광복절을 기념하며 달리는 대회라는 점 등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날 8.5km에 도전장을 내밀고 대회 참가자들과 명품 숲길을 따라 가며 지역 대표 관광 자원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 나섰다. 그는 지난해 직접 코스를 점검하는 등 열성을 보였다.

구 군수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인 너릿재 옛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도 대회 참가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여름에 찾는 숲길의 신선한 생동감을 알리는 데 공을 들였다.

그는 “광주와 화순의 교류 유충지인 너릿재를 찾



“우승은 나의 것” 구충곤(왼쪽 세번째) 화순군수와 김성환(왼쪽 두번째) 광주 동구청장이 15일 전국에서 온 마라토너들과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

는 시·도민들을 위해 너릿재 구간에 유아숲 공원을 조성했고 광주전을 연결하는 순환형 산책로를 만들어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 및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가고 있다”며 너릿재 옛길 명품화 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8·15 광복절 기념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대회’가 선조들의 항일 민

족정신과 호국의지를 되새기고 너릿재 옛길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대표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남자 폴코스 부문 우승자는 정석근 마라톤 사관학교 감독 정석근(44·서울)씨가 차지했고 경기도 안양에서 온 문선미(40)씨는 여자 폴코스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김지용기자 dok2000@

우승자 화제의 참가자

“지난해 희열 못잊고 또 달려...2연패 뿌듯”

남자 폴코스 정석근씨



“광복절(8월15일)에 열리는 의미 있는 대회에서 두 번이나 값진 우승을 차지해서 뿌듯합니다.” 서울 정석근 마라톤 사관학교 감독 정석근(44·서울)씨가 남자 폴코스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우승에 이어 대회 2연패다. 정씨는 “지난해 달렸던 희열을 잊지 못해 다시 참석하게 됐다”며 “오늘 날씨 탓에 상당히 힘들었지만 지난해 참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점별 페

이스 조절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우승 비결을 전했다. ‘마라톤은 외로운 운동이지만 함께하면 행복을 주는 운동’이라는 생각으로 상위권 선수들과 나란히 뛰면서 서로 격려한 끝에 좋은 성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었다. 정씨는 “지금의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 화순과 광주를 관통하는 중요한 길인 너릿재 옛길의 의미를 생각하며 달렸다”며 “무엇보다도 8·15 광복절에 다시금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회를 열어준 광주일보와 마라톤세상에 고맙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너릿재 유명세에 과천시 내려와...우승 큰 선물”

여자 폴코스 문선미씨



“마라톤을 하며 휴가를 즐긴다는 기분으로 달렸는데 우승이라는 큰 선물까지 얻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화순 너릿재 옛길을 찾아 먼길을 달려온 문선미(40)씨가 여자 폴코스 부문에서 가장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 문씨는 “여름에는 주로 경기도 과천시에서 뛰었는데 지난해 너릿재 옛길 코스가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왔다”며 “처

음 뛰는 코스여서 조심스럽게 달리면서 페이스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올해 대회에 너무 만족해 앞으로도 매년 여름에는 너릿재 옛길 코스를 달리면서 훈련할 계획”이라며 “울창한 숲길이 펼쳐지는 너릿재 옛길은 앞으로 다른 마라톤 마니아들에게도 사랑받을 것 같다”고 밝혔다. 폴코스를 125회 완주한 문씨는 항상 즐긴다는 기분으로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기보다는 부상 없이 마라톤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전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마라톤 13년에 이런 길 처음...초보들에 강추”

남자 25km 김수용씨



“대회가 많지 않은 여름에 훈련을 점검하기 위해 처음으로 참석한 대회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어 기쁩니다.” 김수용(42·대전)씨가 남자 25km 부문에서 우승했다. 김씨는 “아스팔트를 달릴 수 없는 여름에는 코스가 어렵고, 무더운 햇빛을 가려주는 산길 코스가

최적의 훈련 장소”라며 “처음 뛰어봤지만 2km 구간별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너릿재는 초심자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코스”라고 설명했다. 13년 경력의 마라토너인 그는 광주일보가 해마다 주최하고 있는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단골 참가 선수이기도 하다. 그동안 폴코스 부문에서 우승만 3차례, 준우승도 2차례나 차지한 실력파다. 김씨는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도 3·1절 전국 마라톤대회만큼 발전하는 대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마라톤은 활력소...여세 몰아 산악마라톤 도전

여자 25km 백지윤씨



여자 25km 코스에서는 백지윤(43·군산)씨가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같은 부문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백씨는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코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참석하게 됐다”며 “우승해야겠다

는 생각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를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달린 것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백씨는 8년 전 출산 후 몸을 관리하기 위해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자신감과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남편, 아들과 여행하러 다닌다는 기분으로 대회에 참석하는 게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는 “저 말고도 다른 실력자들이 많이 나오는 너릿재 마라톤대회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할 수 있다” 정신으로 어느새 폴코스 500회

대기록 김영삼씨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전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대한올트라마라톤연맹 광주전남지맹 소속 김영삼(63·완도)씨가 제2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에서 폴코스 500회 완주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2003년 마라톤을 시작한 지 13년 만에, 폴코스 거리로만 2만1000km가 넘는다. 김씨는 “혼자의 힘이 아니라 가족과 회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마라톤 시작 이후에도 2번이나 입원했지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강을 위해 마라톤을 시작한 그는 1년4개월 만에 서브쓰리를 달성했다. 또 울트라마라톤 코스에 도전해 강화도~강릉 경포(308km), 부산 태종대~파주 임진각(537km), 해남~고성(622km) 울트라마라톤 대회를 모두 완주하는 그랜드슬램기록도 갖고 있다. 이번 폴코스 500회 완주까지 3개 기록 달성은 한국 최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씨는 “국내 기록원에 기록 등재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강과 노년의 행복, 인생의 변화라는 목표들을 위해 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